

북미대화 불씨 살리고… 종전선언 발판 마련

평양공동선언 성과·과제

시험장 폐기 등 비핵화 조치
트럼프 “아주 좋은 소식… 환영”
평양선언, ‘현재 핵’ 언급 없어
너무 앞선 무장해제 결정 논란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에서 가진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4시간이나 넘게 할애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핵’ 문제가 향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지대를 위한 종전선언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지어 두 정상은 이번 일정 중 함께 한 오·만찬장에서도 핵 관련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서 가장 금기시됐고 가장 무거운 주제에 대해 남과 북의 통치자가 마음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 동대문 DDP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면 이번(9월 평양공동선언)은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를 구체화할 실질적 조치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특히 관련 발표가 생중계로 진행됐고, 그동안 미국이 요구한 대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의 영구 폐기를(미국을 포함한) 참관단에게 공개하겠다는 것도 북한이 수용했다. 동창리에서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안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동창리는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미사일 엔진시험장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북한은 이번 평양선언에서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원심분리기를 포함해 최소한 1개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는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수 있음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비핵화와 관련해 그동안 정권다리 역할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정부는 속도를 내기 위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차원에서 주석 연휴기간 미국에서 있을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떠나는 문 대통령이 평양선언에 담지 못한 김 위원장의 또 다른 ‘비핵화 메시지’를 갖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 정상회담과 역시 뉴욕에서의 북미 장관급 회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의 평양 재방문 그리고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다시 고삐를 쥔 한반도 비

핵화를 위한 가장 좋은 그림이 되기 때문이다.

이도훈 본부장은 “우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촉진 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를 해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번에 여건이 좋아진 만큼 결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 한국에서 아주 좋은 소식(a very good news)이 있다”고 환영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국이 바랐던 ‘현재 핵’에 대한 조치와 약속이 이번 평양선언엔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두 정상이 이번에 평양선언을 하면서 양국 군통수권자들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남한이 너무 앞서 ‘무장해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현재 핵을 포함한) 비핵화 문제는 남북, 북미, 한미간에 협의를 통한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또 재래식 무기 군축 역시 비핵화를 위해

서 바람직한 방향인 만큼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재래식(무기) 군축 문제는 군축 대로 남북이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도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북측의 최고지도자가 올해 안에 서울 땅을 처음밟는 역사적 장면까지 연출되는 것이다.

북측 내부에선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결정에 대해 모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통큰 결심’을 북측의 참모진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번 평양선언에선 좀더 시간이 필요한 ‘약속’도 적지 않다. 남북간 경제적, 인도적, 문화적 교류 협력이 대표적이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착공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남쪽의 연결 작업만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에 있는 철도와 도로에 대해서 선 조사나 비용 산출 등 사전작업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를 전제로 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우선 정상화 역시 ‘조건’ 충족까진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방북길 동행 경제인, 경협구상 속도 내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동행한 경제인들도 2박 3일 일정의 북한 방문을 20일 마무리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이라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경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못했지만, 상호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자리에 기업인들이 동참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SK 최태

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이번 방북을 계기로 ‘존재감’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래 대북 사업 구상을 가다듬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성과도 얻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인 방북단의 일정이 대부분 ‘관광’ 테마로 구성된 점과 그룹 총수의 방북 초청 주체를 놓고 정치권 설전이 벌어졌다는 것 등을 놓고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번 방북단에 포함된 경제인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된 인물은 역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었다.

삼성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찾은 이 부회장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현 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때문이다.

리룡남 북한 내각 부총리가 경제인 방북단 면담에서 이 부회장에게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서도 유명한 인물이 되길 바란다”는 덕담을 건네면서 남북 경협에서 ‘역할’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도 눈

길을 끌었다.

지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방북한 SK 최태원 회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그룹 총수 가운데 가장 정력적인 활동

을 보였다는 점에서 남북경협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최 회장은 “건물도 높아졌지만 나무들도 많이 자란 거 같고 상당히 보기 좋았다”는 방북 소감을 밝혀 경협의 첫번째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산림녹화사업 참여의 의지를 나타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LG 구광모 회장은 사실상 이번 방북이 취임 후 첫번째 ‘총수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12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찾긴 했지만 정재계 인사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총수 인증’을 받은 셈이다.

이번 방북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은 ‘경협 대표기업’인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다.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정상화한다는 문구가 포함됐고, “현 회장의 일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리룡남 부총리의 말도 그룹 측으로서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제21회 서평제
보성소리축제
2018. 10. 19.[금] ~ 10. 21.[일]

전국방방곡곡 서평제 – KBS 전국특집 명창대전

전국판소리·고수경연대회 일정

흥과 멋의 우리기락! 아름다운 보성소리의 향연

- 일시 : 2018. 10. 20.(토)~10. 21.(일) / 2일간
- 장소 : 보성다향체육관, 판소리성지 등

구 분	예선 시간 및 장소	본 선	
판소리	(경연순차첨 시간 및 장소)		
	대학및 일반부 명창부	2018.10.20.(토) 13:00~ 대학 및 일반부 명창부 13:00~체육관대기실(3)	-2018.10.21.(일) 10:00 (대학, 일반부) -2018.10.21.(일) 13:00 (명창부)
	신인부 학생부	2018.10.20.(토) 10:00~ 판소리성지 (원형마당) (신인부 08:30, 학생부 10:00 - 판소리성지 원형마당)	2018.10.21.(일) 09:30 (학생부)
고 수	학생부 신인부 일반부 명고부	2018.10.20.(토) 10:00~ 판소리성지 (전수교육관) (학생부 08:30, 신인부·일반부 10:00, 명고부는 13:00 - 판소리성지 전수교육관)	2018.10.21.(일) 10:00 (학생부·일반부·명고부)
종 합	학생부	2018.10.21.(일) 13:00	다향체육관 특설무대

● 참가신청

- 접수기간 : 2018. 9. 1.~10. 17. 18:00까지 도착분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및 대리 신청, FAX · 우편 · e-mail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접수신청서 1부(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 참가비 : 없음

● 신청접수

- 접수처 : 서평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보성문화원)
- 우편 : (59453) 전남 보성군 보성을 송로 281-11 보성문화원
- FAX : (061) 853-2629 ※ 팩스신청자는 예선당일 경연순차첨 30분전까지 사진 제출
- E-mail : bs2629@hanmail.net
- 접수안내 : (061) 852-2621, 서평제보성소리축제 홈페이지 <http://festival.boseong.go.kr/sori>